



## 새 희망 2017 신년인사 제13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

전북상공회의소의 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신년하례회가 3일 전주르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도 병행했다.

### “전북의 미래 열어갈 한 해로”

#### 전북상협 신년하례회 개최 전북경제대상 시상식도 병행

전북상공회의소의 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신년하례회가 3일 전주르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와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회장, 김광수·정동영·유성영·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등 도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계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이 하나돼 전북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 나가는 한해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기업인들과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왔다”며, “정유년에는 도민 모두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인사와 병행해 실시한 제13회 전북경제대상 대상은 가운정전(주)전주공장, 본상 경영인 부문에 한재현(주)한호 회장, 기업부문에 (주)재성이 각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인재용 기자

## ‘금값’ 된 계란... 새해 벽두부터 밥상물가 들쭉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가 30% 이상 살처분을 당한 가운데 새해에도 계란값 폭등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마트에서 만난 주부들은 “계란값이 고깃값보다 비싸다”며 푸념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 가금류 살처분에 따라 알을 낳는 산란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계란 가격이 이미 급등한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가 지난 1일 발표한 특란(중품) 30개 한 판 가격이 8237원으로, AI 최초신고날인 지난해 11월 16일 5678원 보다 47% 올랐다.

AI의 확산으로 산란계 30% 이상이 살처분 돼 계란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 계란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aT가 계란값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처음이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계란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계란값이 일반 고깃값보다

산란계 AI 확산으로 인한 계란 부족으로 가격 폭등 소비자들 “고기보다 비싸” 마트 “설명절까지 이어질 듯”

비싸다는 푸념도 나오는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는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아예 상품진열을 하지 못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판에 5000원 남짓하던 계란값은 지난해 8월부터 요동치기 시작하던 22일 처음 7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치솟는 계란 값에 자칫 계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계란 판매를 ‘1인 1판’으로 제한하고 가격도 인상했으며, 홈플러스는 지난달 들어 계란값을 4차례나 올렸지만 품귀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슈퍼를 운영하는 K씨는 “판매자 입



AI 방역 관계자 격려

이정섭 환경부차관과 김일재 부지사는 고창 동립저수지에서 AI 확산 방지에 인간힘을 쏟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에서는 가격 인상보다 신경 쓰이는 게 물량 확보”라며 “기존 거래처 중 한 곳은 이미 두 손을 들어 나머지 2곳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호소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물량 확보가 어

려워진 소매점주들이 계란을 사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하루가 다르게 공급 사정이 악화되고 산지 시세가 오르는 상황이라서 계란값 상승 추세는 설 시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달걀값이 치솟으면서 주요 제품에

계란이 사용되는 제빵업계에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정기간 산지와 계약을 맺고 계란을 공급해 온 대기업 식품업체들도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판매 중단에 이어 가격인상까지도 검토 중이다.

계란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제빵업계도 비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란이 부족한 시기를 틈타 가격 인상을 유통·식품업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직접적인 피해는 제빵업체보다 덜하지만 쿠키 및 비스킷을 생산하는 제과업체와 베이커리군을 판매하는 커피프랜차이즈업체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제과 제품에 계란 사용이 많아 매일 AI사태 및 계란 수급량 등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며 “AI 사태 장기화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원가 압박, 생산 감소 및 중단 등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새해엔 정권교체 촛불민심 받들겠다”

#### 민주당 도당 신년인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국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2017년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관련사진 2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주의 한 웨딩홀에서 ‘2017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2017 정권교체 촛불민심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정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이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진 국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당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촛불민심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촛불민심에서 보여준 도민의 힘을 모아 국민이 주인 되고 도민이 주인 되는 2017년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뉴스

장수 농·특산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장수사과</b> 장수사과	<b>장수한우</b> 장수한우	<b>장수토마토</b> 장수토마토	<b>한과세트</b> 한과세트	<b>오미자 진액</b> 오미자 진액	<b>장수생표고</b> 장수생표고
---------------------	---------------------	-----------------------	---------------------	-------------------------	-----------------------

2017 자연이 주는 휴식  
장수에서 만나 보세요~~!!

NAVER 장수군청 · 검색 www.장수물.com 장수물 JANGSU MALL 장수군